

세례요한의 위대한 겸손

The Great Humility of John the Baptist

마태복음 11:7-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월 27일 설교

⁷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⁸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⁹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¹⁰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¹¹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가짜 겸손

영어 우스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완성해 놓고 보니까 내용이 마음에 쏙 듭니다. 평범한 주일에 써먹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 행사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려고 따로 빼 놓았습니다. 설교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이게 왜 유머입니까? 겸손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작 목사 저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의 교만에 빠졌다, 그래서 우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사가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이거 사실은 틀렸습니다. 이거 유머 아닙니다. 설교 내용이 좋으니 더 멋지게 써먹어야지 하는 건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만처럼 보이지요. 내 설교가 훌륭해 보이는 건 보기 드문 교만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이 금지하는 교만,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머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일부입니다. 유머도 제대로 된 유머를 제대로 즐겨야지 엉터리 유머를 즐기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물이 듭니다.

세상에도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겸양지덕을 배워 실천하셨지요. 손님을 청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고 뭐라 합니까? “준비가 부족해 송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 할 거면 손님은 왜 불렀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말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뜻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주인이 “많이 못 차렸습니다” 하는데 손님이 맞장구를 친다고 “예, 정말 별 것 없군요”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자기를 낮추면 손님은 또 손님대로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 주시고 또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서로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세상의 겸손이고 예절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들도 나를 그렇게 밟아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정반대입니다. 높여달라고 낮춥니다. 멋진 일을 해내고서도 “부끄럽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저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인품마저 고상하구나 하고 높여줍니다. 부끄럽다 한다고 정말 부끄럽겠습니까? 자랑스럽겠지요. 잘난 내가 자랑스럽고 그걸 과시하는 대신 이렇게 낮출 줄 아는 내가 더 대견스럽겠지요. 마음은 아니지만 말이나 태도로 나를 낮추는 게 세상의 예절입니다. 그런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예절입니다.

세례요한의 겸손

오늘 겸손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을 잘 살피면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이 한 말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 말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겸손이라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확인도 해 보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겸손입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난데 내가 나 아닌 남을 위해 산다, 사실 이거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거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세례요한이 한 위대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봅니다만 요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평생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제 일을 상당히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 하면

서 얼른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외쳤더니 추종자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상당한 세력이 된 거지요.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책에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유명했다는 뜻인데, 이쯤 되면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문선명이 되고 싶은 유혹이지요. 예수 낚두고 내가 그냥 구세주 하지 뭐, 그런 유혹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한 이 분이 혹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눅 3:15).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저 준비하는 사람일 뿐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 3:11). 일단 자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보다 더 세다, 붙으면 내가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주제도 못 된다.” (사복음서 및 행 13:25, 마태만 신발 들고 다님, 나머지는 신발 끈 묶음.) 그 시절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은 중, 곧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나는 그 분의 신발을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조차 안 된다 하였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선지자 요한

그러던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눈 밖에 났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는데 요한이 이걸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동생이 뻔히 살아있는데 이혼을 시키고 저도 이혼을 하고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남 사이에도 나쁜 짓이지만 이건 근친이니까 더 못된 짓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꾸짖었고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당장 지옥 불에 처넣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가르칠 때 구원과 함께 심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면서도 심판을 행하실 기미는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심판을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자 몇을 예수께 보내 여쭙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제가 전파한 오실 그 분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해를 했습니까? 오실 그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아픈 사람이 낫고 소외되었던 사람이 위로를 얻는다고 전해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혹 상황을 오해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심판은 아직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재림하실 그 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선지자라서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오락가락해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허름한 복장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외쳤습니다. 좋은 옷 입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낸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희미한 것도 있고 이것저것 뒤섞여 헛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도 구약 시대에 속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을 얼른 행하시지 않자 궁금해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마 11:13).

더 나은 요한

예수께서는 요한이 선지자라 하신 다음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처음 저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해 그런지 예수께서도 처음에는 비교를 하십니다. 뛰어나다는 말씀인데 그냥 뛰어나다 해도 칭찬인데 더 뛰어나다 하시니 상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뭐가 요한을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도 비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비교 자체를 못 하게 만드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모양은 비교급이지만 내용은 최상급이지요. 여자가 안 낳은 사람도 있습니까? 결국 세례요한이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이유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언만 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보았습니다. 보기만 했습니까? 그 분이 오시는 길을 직접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결국 요한의 위대함은 요한의 겸손과 통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그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의 모습은 곧 나를 최대한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최대한 높인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저 바닥까지 낮춘 일입니다. 그게 곧 세례요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천국백성의 위대함

요한이 그럼 그렇게 자기를 낮춘 이유가 뭘겠습니까? 요한의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께서 이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마저도 요한보다 크다.” 작다는 말의 원문이 미크로, 작다는 말입니다. 그걸 최상급으로 쓰셨으니 가장 작은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하십니다. 이거 세례요한을 깎아내리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하시더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을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서 온 건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셨습니다. 밑줄 그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 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한 마디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서도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거 기본입니다.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요한은 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곧 헤롯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었지만 그 나라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못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전했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못 보았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곧 자연의 생명을 가진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겸손

세례요한의 겸손은 세상에서 배워 익힌 예절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죄 사함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이 분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이 분을 믿어 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죄인이고 그 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입니다. 나는 멸망 받아 마땅한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자격도 안 된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어 그 말을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가셨을 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십니까?” 주님, 제가 죄인인데, 제가 주님에게 죄를 용서받고, 제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다니요! 세례요한의 겸손은 사람들끼리 서로 기분 좋으라고 주고받는 그런 예절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달은 데서 나온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요한에게 했습니다 (요 3:22-30). 제자 다 뻗기니 어떻게 좀 하시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하고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내 제자였던 사람이든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기쁘다는 말이지요? 이어 또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구주신데 주님 외에 흥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추종자도 상당히 생겼지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 일 아닙니까? 그저 기쁨 밖예요. 나 같은 사람이 메시아의 선구자 노릇을 했다는 게 그저 황송할 따름이지요. 그

게 요한의 겸손이요, 예수께서 칭찬하신 위대함이었습니다.

겸손 겸손 겸손

기독교 초기 교부이면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이 다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곧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백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겸손이 복음의 세 덕목 믿음, 소망, 사랑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귀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적다가 너무 소중해서 깜빡했습니까? 아니지요. 겸손은 열매가 아닙니다. 겸손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열매가 다 겸손이라는 나무에 달립니다. 겸손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겸손은 말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예의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난 파멸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내 더러운 죄를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곧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면서 간절히,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부모 없이 아무 것도 못 하는 아이처럼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얻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는 얻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사랑 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걸 깨닫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집에 오시라 할 자격조차 없다 고백한 이방인 백부장도,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위대한 겸손

우리 다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요. 위대한 인생까지는 못 돼도 적어도 가치 있게 보람되게 멋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좀 누리 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 행동으로 나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칭찬 아무리 들어도 참으로 값진 인생, 정말 위대한 삶은 못 얻습니다.

오직 겸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겸손을 아는 데 있습니다. 겸손은 나하고 남을 비교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좀 가졌지만 못 가진 사람 앞에서 힘주지 않고, 나도 좀 배웠지만 많이 못 배운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나도 참 잘났지만 말은 부족하다 하고 다 여러분 덕이라고 다른 사람을 높여,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남들이 못 보는 내 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위선,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영원한 저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주 예수를 높이며, 나는 신발 들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크다 하십니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멋있으라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알고 믿는 순간, 그래서 겸손을 배운 순간,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영광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받았습시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하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니 예의도 배워야 되고 세상 겸손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다, 건방지다 부르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없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비었으면서 겉만 치렁치렁 꾸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의 예절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겸손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예절은 세상이 가르치는 예절보다 더 엄격해야 맞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나오는 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면 좋겠습니다. 바른 소리 하다가 젊은 나이에 칼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값진 인생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은혜

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위대한 겸손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